

“인터넷은 문학의 동반자”

공지영·정이현 등 작가들 포털사이트에 작품 연재

박찬욱·승효상·이적·장하나 등 서재 공개도

인터넷이 문학작품의 동반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영상 등 각종 매체의 발달로 독자들이 감상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엔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 독자들과의 만남을 늘리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인기작가도 작품을 연재하고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은 감명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전시판도 조만간 문을 연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달 말부터 ‘다음’을 통해 광주 인화학교 사재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도가니’를 선보인다. 또 ‘연금술사’로 유명한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

의 산문과 소설가 이기호(광주대 문창과 교수)씨의 소설도 함께 연재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로 주목을 받았던 소설가 정이현씨도 ‘너는 모른다’라는 추리소설을 인터넷 교보문고 사이트를 통해 발표하는 등 본격문학 작가들의 인터넷 연재가 늘고 있다.

네이버는 매달 한 명의 지식인을 선정해 그들의 서재를 공개하는 ‘지식인의 서재’(http://book.naver.com/bookshelf)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선정된 지식인의 서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 동영상과 함께 지식인이 직접 추천하는 우수 도서 100권이 소개돼 있다.

박찬욱 영화감독 서재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건축가 승효상, 가수 이적, 셀리스트

장하나의 서재가 공개됐다.

박찬욱 감독은 한국인의 정서가 진하게 배어있는 ‘관촌수필’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가수 이적은 어린 시절 감동받았던 ‘사자왕 형제의 모험’과 대학시절 사물을 보는 시선에 전환점을 마련해준 ‘카프카의 단편집’ 등을 추천했다.

문학 작품을 소재로 한 그림 전시회를 소개하고 이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연다.

문학단체인 문학사랑과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는 국내 중요한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인터넷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문학미술관(가칭)’을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별신과 어머니’ ‘당신들의 천국’ 등 고이철준 선생의 소설을 소재로 한 김선두씨의 서양화 작품을 비롯해 ‘장길산’ ‘삼포가는 길’ ‘오래된 정원’ 등 황석영씨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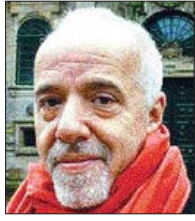
공지영



이적



장하나



코엘료

품을 소재로 한 민정기씨의 작품, 정호승 시인의 시를 테마로 한 박항렬씨의 시화 등 모두 300여 점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기호 광주대 교수는 “본격문학의 인터넷 연재는 한정된 지면에서 벗어나 독자들을 광범위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반면 댓글 형식으로 즉각 나타나는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작가들이 위촉과 작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社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 12월 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접수마감 : 2008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급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889)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처가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요.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0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광주비엔날레 재단 워크숍

차기 감독 선임 과정 등 논의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차기 대회 감독 선임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연다.

재단은 16일 “2010년에 열리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기본 틀을 잡기 위해 오는 21~22일 나주 증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용우 상임부사장을 비롯해 재단 팀장급 이상 간부 10여명과 이사회 예술소위원회 김영호(중앙대 예술대 교수), 김광명(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장), 정승주(전남대 명예교수), 정광주(한국미술협회 광주시 지회장), 최영훈(조선대 미술대학 교수) 이사 등이 참여한다.

또 외부 전문가로는 미술평론가 심상용(동덕여대 예술대학 교수), 헤럴드경제 이영란(문화생활 팀장) 기자, 광주·전남문화재단 김지원 사무국장 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크게 ▲2010 광주비엔날레 전시 방향 설정 ▲차기 감독 선임 과정 논의 ▲2008 광주비엔날레 총평 ▲비엔날레 부대 행사 등 전시 이외의 행사를 계획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2008 광주

비엔날레가 대인시장, 의재미술관 등지로 전시 공간을 확대해 호평을 받은 것과 관련, 향후 대회에서도 외부 전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뜰도서 무료 교환’

17~18일 금남지하상가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이 17~18일까지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문고 광주동구지부가 도서를 재활용하고 독서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집에서 읽고난 뒤 보관만 하고 있는 책을 이웃 간에 서로 교환해 볼 수 있다.

새마을문고 광주동구지부는 도서 교환시장에 아동, 문학, 교양도서 등 우량도서 2천여권을 비치할 예정이며 독서지도와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광주시민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교환해 볼 수 있으며 잡지류, 문고판, 만화, 교과서, 전문도서 등은 교환이 안된다. 문의 062-227-919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립국극단 ‘국악의 향연’

1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춤, 소리, 타악이 어우러진 한바탕 신명난 무대.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 37회 정기공연이 1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신명나는 관악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민요 외북춤,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등 남도 민요, 정중동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교방무, 송순섭·박은종씨가 함께 하는 입체창 ‘수궁가’ 중 ‘토끼 팔난’이 관객을 찾아간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창 안숙선씨가 특별 출연, 적벽가 중 ‘새타령’을 들려준다. 안씨는 이어 이영애·문명자·황승욱가야금병창단 50여명이 함께 대형 무대에서 ‘호남가’, ‘제비노정기’ 등도



송순섭 단장



안숙선씨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희망찬 새해를 기원해 보는 ‘기축년 화풍맞이’가 장식한다.

최혜정·문상노·최지선·김영연·박근태·빈중영·김경희씨 등 50여명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실재 없는 웃음 폭탄 ‘라이어 1’ 광주 공연

18~23일 5·18 기념문화센터

실재 없이 웃음 폭탄을 날리는 국민연극 ‘라이어 1’이 광주에서 공연된다. 18일~23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6시)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천회 이상 공연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라이어 1’은 ‘거짓말’로 인해 벌어지는 하룻동안의 해프닝을 그린 작품.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는 워블턴과 스트리트행에 메리와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이중생활을 한다. 하지만 운전 중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의 이중생활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라이어 1’은 공연 내내 관객들을 포복절도케 한다. 한번 시작한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위기에서 모면하려는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연극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라이어 1’의 성공으로 ‘라이어 그 후 20년’,



‘튀어’ 등의 작품이 공연중이며 주진모·공형진 주연의 한국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다.

이재원·김현정·이석호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3만 5천원, 2만 5천원. 문의 15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2008년 11월 22일 오픈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촌로 222-2

문의: 062-227-2222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문의: 064-744-1109